

曲玉의 起源

韓炳三

一、緒言

曲玉은 C字形으로彎曲한 몸체 一端에 구멍을 뚫어서 佩玉하는 玉을 말한다. 이러한 曲玉은 韓半島의 南部地方과 日本에만 分布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百濟와 古新羅古墳에서 出土되고 있는데 最近에 發掘된 慶州의 天馬塚과 九八號古墳에서는 硬玉과 유리玉製 曲玉이 數百點씩이나 副葬되어 있었다. 當初 曲玉은 呪術的宗教的인 儀器로 出發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古墳時代에 들어와서는 裝飾品으로 많이 使用된 것 같다.

日本の 경우는 新石器時代인 조—봉(繩文)時代 中期로부터 奈良時代에 이르는 長期間에 걸쳐서 曲玉이 使用되었다. 그래서 日本學者들은 曲玉이 日本에서 發生한 獨特한 장식품이라고 主張할 뿐만 아니라 新羅古墳에서 出土되는 多量の 曲玉들은 殆半이 日本에서 輸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몇몇 소수 學者들의 學說만은 아니다. 明治時代 以後 考古學에 관여한 學者들이라면 曲玉에 대해서는 의례히 自己說을 피력하기 마련이고 그럴때마다 한결같이 日本起源說을 主張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日本學者들의 主張의 根據는 曲玉이 조—봉(繩文)、야요이(彌生)등 先史時代 遺蹟에서부터 出土되고 있다는 것과 最近에 日本의 이즈모(出雲) 地方을 비롯한 東海에 面한 地方들에서 硬玉의 產地

가 發見되고 있으나 韓半島에는 硬玉產地가 없다는데 두고 있다. ① 또한 韓半島에 있어서는 曲玉의 出土地域이 南部地方에 限定되어 있으며, 曲玉을 製作하던 遺蹟이 發見되지 않았다는 것도 日本起源을 뒷받침하는 理由中的 하나이다.

그러나 最近 數年間 우리나라의 各地方에서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曲玉들이 속속 發見되고 있다. 이러한 曲玉들 中에는 日本의 조—봉(繩文) 曲玉과 類似的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매우 正교한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出土된 先史時代 曲玉들만 가지고도 概略적인 型式變遷은 물론이려니와 그 起源의 윤곽도 찾아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曲玉이 韓半島에서 起源하여 日本에 傳播되었다고 하는 主張은 筆者의 日本考古學에 대한 知識으로는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曲玉이 日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고자 할 따름하며, 또한 이러한 方法만이 曲玉의 起源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一、先史曲玉의 出土例

過去부터 알려진 雄基松坪洞出土品은 생략하고 最近에 새로 發見된 先史曲玉만을 紹介하고자 한다.

一、大田 槐亭洞出土 曲玉^㉔ (圖一)

一九六七年 七月初에 大田市 西北郊外 槐亭洞의 石棺墓에서 두개의 曲玉이 發見되었다. 이 曲玉들은 細形銅劍、銅鏡、劍把形銅器등 多數의 靑銅器들과 一括로 出土되었다.

두개의 曲玉이 出土되었는데 石材는 綠은 코발트色에 흰 반점이 박힌 天河石製이다. 圓形의 돌을 돌로 잘라, 잘린面의 中間部를 다시 半圓形으로 도려낸 形態이다. 한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매어 달 수 있게 하였다. 크기는 各各 三、四cm와 三、二cm이며 두께는 一、一cm이다.

二、扶餘郡 蓮花里出土 曲玉^③ (圖2)

一九六四年 蓮花里의 石棺墓에서 細形銅劍、銅鏡등과 같이 出土된 것으로서 石材나 形態나 槐亭洞 曲玉과 꼭 같다. 크기는 四、五cm, 두께 二cm,

三、盈德郡 江口面 鳥浦里出土 曲玉^④ (圖3)

埋藏文化財로 申告된 것인데, 碧玉製의 三百餘個 管玉과 함께 出土되었다고 한다. 두개의 曲玉은 石材가 모두 天河石인데 색깔도 槐亭洞이나 蓮花里것과 꼭 같다. 形態는 구멍이 뚫린 머리部分이 꼬리부분보다 굵어서 古墳에서 出土되는 曲玉과 좀더 가깝다. 크기는 三、八cm와 三、七cm이며 두께는 一、五cm이다.

이 曲玉들이 어떤 遺構에서 出土되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靑銅器와 伴出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四、扶餘郡 松菊里出土 曲玉^⑤ (圖4)

一九七四年 四月 松菊里 丘陵의 石棺墓에서 遼寧式銅劍、磨製石劍、石鏃등과 함께 出土되었다. 이 曲玉들은 鳥浦里 曲玉과 形態가 거의 같으며 石材는 天河石으로서 前者들과 같다. 크기는 三、二cm, 三、四cm이다.

五、平南 北倉郡 大평리出土 曲玉^⑥ (圖5)

一九六七年 四月 北倉郡 大평리 大同江上流 河岸에 形成된 沖積地帶에서 住居址、支石墓 그리고 石箱墳이 多數發掘되었다. 이중 第四石箱墳에서 磨製石劍、石鏃등과 함께 두개의 天河石製 曲玉이 出土되었다. 이 曲玉들은 斷面이 납작한데, 그중 한개는 頭部와 尾部의 形態가 꼭 같아서 둥근 環을 잘라 놓은 것 같다. 다른 하나는 內灣한 쪽에 두개의 작은 突起가 있다. 크기는 전자가 三、一cm, 폭이 一、二cm이며 후자는 길이가 二、六cm, 폭이 一、四cm이다.

이 밖에 第九號와 第一號 石箱墳에서도 天河石으로 된 飾玉들이 出土되었는데 길이가 불과 一、六cm 정도의 아주 작은 것들로서 形態로 一定치가 않다. 마치 日本의 죠-몽(繩文) 유적에서 出土되는 曲玉과 너무나 흡사하다.

六、馬山 城山貝塚出土 曲玉^⑦ (圖6)

一九七四年 城山貝塚의 東部地區에서 水晶製 曲玉一點이 出土되었다. 曲玉은 尾部가 頭部보다 약간 가늘며 斷面은 抹角方形에 가깝다. 전체적인 모양이 古墳出土 曲玉과 유사하다.

城山貝塚의 東部地區는 四個의 層位로 形成된 貝塚인데, 最下層은 無文土器, 그 위는 金海式 赤色軟質土器가 主流를 이루는 層이고, 上層은 灰青色土器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最下層과 赤色軟質土器가 出土되는 中間層사이에는 黑色을 띤 얇은 間層이 確認되었다. 이 間層에서는 無文土器, 半月形石刀등과 赤色軟質土器가 混合出土되고 있는데 曲玉은 바로 이 間層에서 나왔다. 이 間層은 無文土器末期에서 金海土器가 始作되는 時期에 形成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水晶製 曲玉은 金海期極初期에 만들어진 것이다.

七、釜山市 槐亭洞出土 曲玉^⑧ (圖7)

一九七五年 八月 釜山市 西區 槐亭洞 洛東江河口가 바라보이는 傾斜 四〇度 정도의 산 중턱에서 많은 石棺墓가 發掘되었다. 이 石棺墓들은 대체로 東西向으로 놓여 있는데 墓사이의 거리는 불과 三・四〇cm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이 石棺墓는 당초부터 封土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一九六一年 蔚州郡 三光里에서 發掘된 石棺墓群과 비슷하다.

槐亭洞 石棺墓들은 伸展葬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개중에는 작은 石棺속에 合口式 甕棺이 들어 있는 것도 있었다. 曲玉이 出土된 곳은 四邊이 一m 깊이가 七〇cm 정도의 작은 石棺墓속에 들어 있는 合口式 甕棺속에서 出土되었다. 甕棺은 口緣이 外反된 赤色에 繩蓆文이 있는

壺形土器들이다.

이 槐亭洞 石棺墓에서는 灰青色의 古新羅土器도 많이 出土되고 있으나, 金海期貝塚에서 흔히 보이는 赤色軟質의 繩蓆文土器도 섞여 있다. 發掘報告書는 現在 作成中이지만 대체로 末期의 金海期 遺蹟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나온 曲玉들은 滑石製로 斷面이 抹角方形에 가깝고 頭部와 尾部가 가늘고 뾰족하게 생겼다.

이상 列擧한 曲玉의 예 금년 六月初에 調査된 牙山郡 新昌面 南城里 果樹園에서 石棺墓로 보이는 무덤속에서 細形銅劍・銅鏡・劍把形銅器를 비롯한 많은 靑銅器와 함께 槐亭洞이나 蓮花里에서 出土된 것과 똑같은 天河石製 曲玉이 出土된 바 있다. 이 遺蹟은 土地所有者에 의해서 이미 파헤쳐졌고 遺物은 洞民들 손에 넘어간 것을 나중에 수습해온 것이다. 여기서 수습된 曲玉은 蓮花里의 경우와 같이 한개 뿐인데, 당초에는 두개가 一雙을 이루고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三、曲玉의 祖型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天河石製 先史曲玉은 크게 두개의 型式으로 分類된다. 첫째는 半圓의 直線部의 中心에서 다시 半圓으로 돌려내어 마치 둥근 環을 兩分한 것같은 形態인데, 大田 槐亭洞, 扶餘 蓮花里, 牙山郡 南城里에서 出土된 것이 여기 속한다. 둘째는 도려낸 部位가 半圓의 直線部의 中心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頭大尾小形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形態는 扶餘 松菊里, 盈德 鳥浦里에서 出土된 바 있다. 雄基松坪洞의 先史曲玉은 약간의 差異가 있기는 하나 구태어 分類한다면 첫째 形式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 注目할 것은 天河石製 先史曲玉들의 태반이 遼寧式銅劍이나 細形銅劍 및 多鈕鏡들의 靑銅器들과 伴出되고 있으며 靑銅器를 수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靑銅器 文化人들의 遺蹟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天河石製 先史曲玉이 遼寧式銅劍이

나 細形銅劍을 使用한 靑銅器文化人의 所産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遼寧地方에서는 現在까지 先史曲玉은 發見된 바 없으며 이 地方에서는 曲玉 대신 半圓形의 天河石製 飾玉이 出土된 例가 있다.

一九六五年 八月 瀋陽 近郊의 鄭家窪子 六五二號墳에서 完存한 人骨과 함께 遼寧式銅劍・多鈕鏡・銅斧 등과 함께 많은 靑銅器가 發見되었다. (圖8) 이 完存한 人骨의 목에는 天河石製 管玉을 連結한 목걸이가 걸려 있었으며, 이 管玉 목걸이에는 한개의 半圓形飾玉이 달려 있었다. 이 半圓形飾玉은 두개의 구멍이 兩端에 뚫려서 管玉과 連結되었고 斷面은 납작한 편이며 길이는 六、二cm에 달하는 大形이었다.

이와 같은 天河石製 半圓形飾玉은 과거에 平南 价川郡龍興里와 忠南 牙山郡 白岩里 (圖9)에서도 出土된 바 있다. 龍興里에서는 末期의 遼寧式銅劍 및 磨製石斧와 伴出되었으며, 白岩里의 飾玉은 無文土器長頸壺와 함께 埋藏文化財로 申告된 것이어서 靑銅器伴出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후에 筆者가 直接 出土地를 調査해 본 결과 石棺墓로 보이는 遺構 바닥에는 大田 槐亭洞에서 出土된 것과 같은 粘土帶土器片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日本人學者 橫山將三郎氏가 서울近郊 鷹峰遺蹟에서도 圖10과 같은 曲玉을 發掘이 아닌 地表採集에 의해서 수집하였는데, 이 遺蹟에서는 粘土帶土器와 半月形石刀, 石鏃등이 같이 採集되었다.

以上 半圓形飾玉의 出土例를 살펴본 결과 半圓形飾玉과 先史曲玉은 同一한 性格의 遺蹟에서 出土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換言하면 同一種族의 所産임이 明白하다. 그렇다면 問題는 두가지 形式中에 어느 것이 先行한 것인가에 귀결된다.

앞서 말及한 바와 같이 半圓形飾玉의 경우 白岩里 出土品을 제외하고 鄭家窪子와 龍興里에서는 遼寧式銅劍과 伴出되었다. 先史曲玉의 경우 松菊里에서는 遼寧式銅劍을 수반하였으나 蓮花里와 槐亭洞, 그리고 南城里에서는 細形銅劍과 伴出되었다. 그러니까 伴出된 靑銅器를 通해 보

면 半圓形飾玉이 先史曲玉보다 先行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靑銅器文化가 遼寧地方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細形銅劍이 遼寧式銅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學界의 定說로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先史曲玉은 半圓形飾玉에서 由來되었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問題가 되는 것은 松菊里銅劍이다. 松菊里銅劍은 遼寧式銅劍 중에서 古式으로 보는 見解가 있고, 또한 磨製石劍·石鏃이 伴出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紀元前一〇世紀頃까지 올려보고 있다. 이러한 見解는 遼寧地方에서 松菊里式銅劍이 西周式銅器와 伴出되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松菊里의 磨製石劍은 型式上으로 보아 磨製石劍中에서도 最末期에 登場하는 無段式 有柄石劍인데 이러한 石劍은 朝高貝塚 最下層에서 粘土帶土器·軟質의 金海式土器 그리고 彌生中期初에 해당하는 須久式 蠶棺片들과 共存하고 있으며 松菊里의 磨製石鏃도 鋒部가 三角形의 鎮海·昌原式으로서 末期의 石鏃形式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曲玉의 경우도 頭大尾小의 發展된 形態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銅劍 자체가 古式이라고 해서 遼寧地方의 경우와 같이 時代를 끌어 올려보는 것은 論理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却說 先史曲玉의 祖型을 半圓形飾玉으로 본다면 靑銅器들이 半圓形이나 曲玉같은 形態를 創案한 理由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結論부터 말하면 이러한 形態는 月崇拜에서 由來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見解는 故 金良善先生이나 日本의 水野祐氏 등에 의해서 이미 發表된 바 있으나 이들은 曲玉의 起源을 초생달에서 찾았다. 그러나 曲玉의 形態는 半圓形에서 由來되었다고 보면 起源은 초생달이 아닌 반달인 것이다.

兩氏의 曲玉起源說은 註에 紹介한 바와 같으나 筆者는 人間の 月崇拜思想은 生活周邊에서 일어나고 또한 必要로 하는 보다 日常的인 經驗에서 생겨났다고 본다. 曆法을 모르는 先史人들은 달의 變化를 보고 朔·望·晦를 구분하여 日月을 算定하였을 것이고 또한 여기 의해서 農

事의 季節도 가리고 航海도 했을 것이다. 靑銅器人들은 安定된 農耕民이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고 또한 航海術도 어느 정도 익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遼寧式銅劍의 傳播經路가 陸地가 아니라 海路였다는 것은 이미 確한 바 있어서 本論에서 省略하나 이 時代에 海上交通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이 달은 當時人의 生活과 直結된 神秘롭고 고마운 存在였기 때문에 月崇拜思想이 일어났고 이러한 달을 상징하는 半月形玉이 護符내지는 呪術의 儀器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半圓이라는 形態는 滿月을 表示하면 太陽과 區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같이 變化하는 달의 特性을 따서 만들어 졌다고 본다. 이렇게 半月로서 象徴되던 달이 후에 초생달로 變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代의 半月形飾玉이나 曲玉이 모두 靑色 바탕에 작고 흰 斑點이 박힌 天河石으로 만들어진 것은 달빛의 幽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엮을 것이다.

四、結 語

지금까지 검토해본 內容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 東北地方에서 遼寧式銅劍을 使用한 靑銅器人들이 月神의 象徴으로서 半月形의 天河石製玉을 呪術의 護符로 佩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半月形玉이 靑銅器와 함께 韓半島에도 傳來되었고 忠南地方에 이르러서는 초생달형의 先史曲玉으로 變形되어 南部地方에 까지 波及되었으며 이것이 다시 바다를 건너 日本으로 傳來되었다. 이렇게 變형·發展해온 先史曲玉이 南部地方의 金海文化期에 들어오면서 보다 古墳出土 曲玉과 類似한 形態를 갖추게 된다.

鄭家窪子—白岩里—大田槐亭洞—松菊里—城山—貝塚—古墳曲玉
龍興里—蓮花里—鳥浦里—釜山市—槐亭洞

以上과 같은 曲玉의 發展 系譜를 통하여 分明해지는 것은, 曲玉이 日

本에서 起源하여 韓半島南部에 傳播되었다는 日本學界의 主張은 사실과 다르며 百濟・新羅古墳에서 多量으로 出土되는 曲玉은 韓半島 青銅器文化의 所産인 先史曲玉에서 由來되었다는 事實이다.

資料의 不足으로 상세한 검토가 不可能하였음을 自認하며 이 問題에 對한 보다 明確한 解決의 실마리가 될 새로운 發見을 기다려 增補할 것을 期約하는 바이다.

註

- ① 最近 우리나라에서도 慶南 晉州와 忠北 丹陽地方에서 硬玉의 產地가 發見되었다거나 아직 正確한 地名은 確認하지 못하였다.
- ② 國立博物館 學術資料集一「青銅遺物圖錄」一九六八年, 서울
- ③ 國立博物館「前揭書」
- ④ 埋藏文化財로 國庫收入되어 國立中央博物館 遺物番號 一四七二八로 登錄되어 있다.
- ⑤ 「考古學」第三輯 및 安承周「扶餘 松菊里 遼寧式銅出土 石棺墓」百濟文化第七・八合輯, 一九七六, 百濟文化研究所
- ⑥ 정찬영「복창군 내평리 유적 발굴보고」考古學資料集 四, 一九七四
- ⑦ 文化財管理局「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一九七六, 서울
- ⑧ 이 遺蹟은 一九七五年 釜山 韓星女子大學 鄭澄元教授가 發掘하여 報告書作 成中에 있다.
- ⑨ 一九七六年 二月에 國立博物館에 申告되었고, 六月에 現地를 發掘調査한 바 있으며 遺構는 土墳墓로 추측되고 있다.
- ⑩ 拙稿「价川 龍興里出土 青銅劍과 伴出遺物」考古學 第一輯 一九六八, 서울
- ⑪ 「考古學」第三輯, 一九七四, 서울
- ⑫ 拙稿「考古學」第一輯 一九六八, 서울
- ⑬ 李白圭「京畿道出土 無文土器 磨製石器」考古學 第三輯 81P 一九六八, 서울
- ⑭ 安承周「前揭書」
- ⑮ 朝島貝塚은 一九七四年 國立博物館이 發掘하여 現在報告書 作成中이다.
- ⑯ 故 金良善先生은 曲玉이 달에서 由來되었다는 근거로서, 달이 人間の 崇拜 對象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舊約聖書의 記錄에서 찾고 있다. 舊約聖書의 土 師記와 이사야書에 오리엔트人들이 반달장식을 애용하였으나 히브리人들은 異教徒 색채가 농후한 반달장식의 佩用을 금하였다는 기록을 상기시키면서 土師記나 이사야書가 쓰여진 紀元前 千年期에 月崇拜에서 생겨난 曲玉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 도 달의 신비성을 느껴서 달에 대한 崇敬의 念이 생겨서 달에 대한 護符의 인 것으로 曲玉이 탄생하였다고 하였다. 金良善「가본玉 源流考」梅山國學叢攷 一九七二, 서울

水野 祐氏は 日本에서 現在까지 建國神話와 관련되어 崇拜의 對象이 되고 있는 「三種의 神器」를 言及하면서, 「天岩戸神話」가운데 天照大神이 굴 속에 숨어서 暗黒世界가 되었을 때 光明을 찾기 위한 祭를 올렸다면 日月의 光明을 찾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술이 日神像이면 月神의 像은 曲玉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水野 祐「勾玉」學生社, 東京

⑰ 彌生時代 遺蹟이 密集된 北九州 板付근처 諸岡遺蹟 第六竪穴에서 先史曲玉이 出土된 바 있다. 이 先史曲玉은 彌生式土器(板付Ⅱ式)와 韓半島系의 粘土帶土器와 伴出되었다. 福岡教育委員會「板付周邊遺蹟調査報告書(一)」(福岡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三一集) 一九七五, 福岡

(國立慶州博物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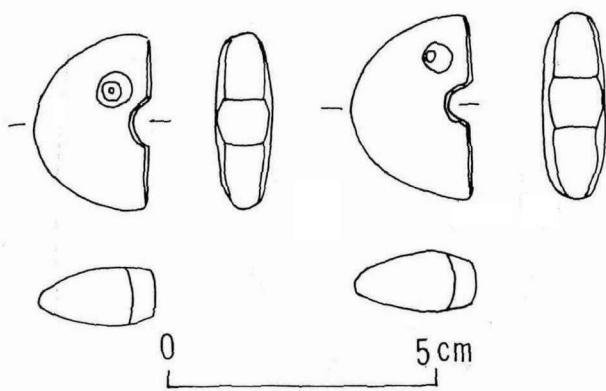


圖 1. 大田 槐亭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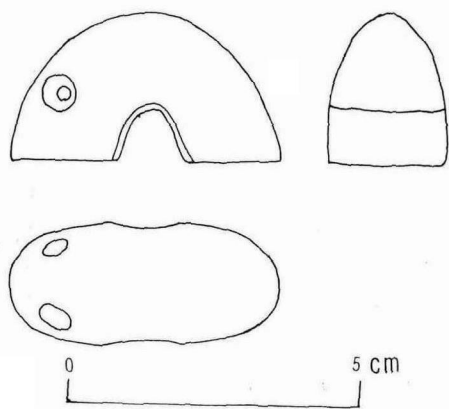


圖 2. 扶餘 蓮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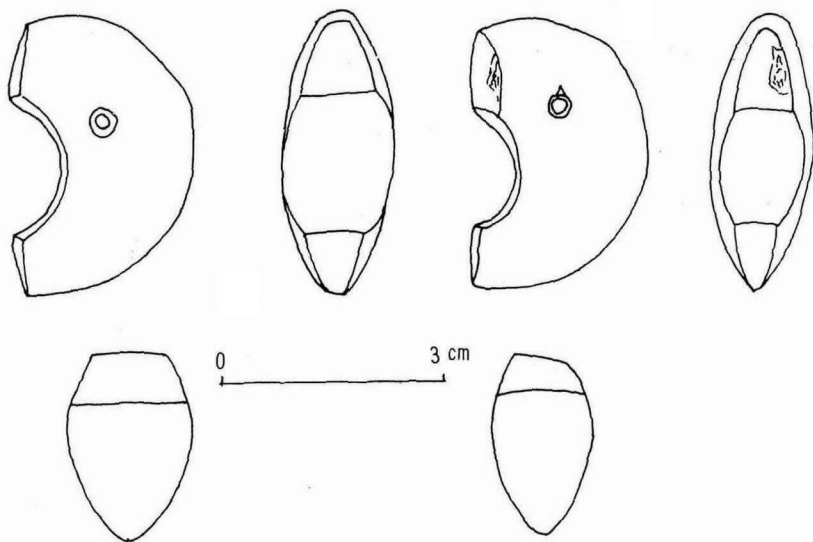


圖 3. 盈德郡 烏浦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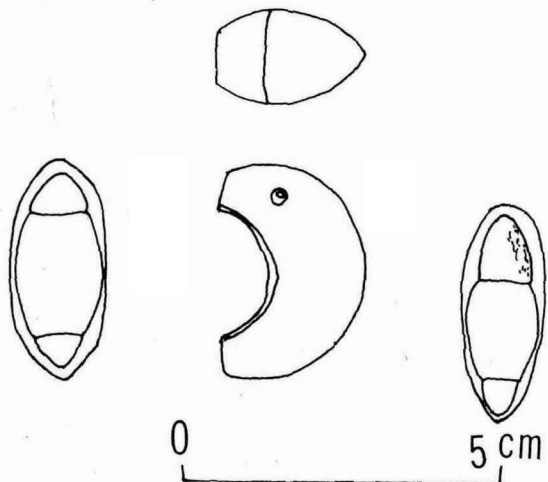


圖 4. 扶餘郡 松菊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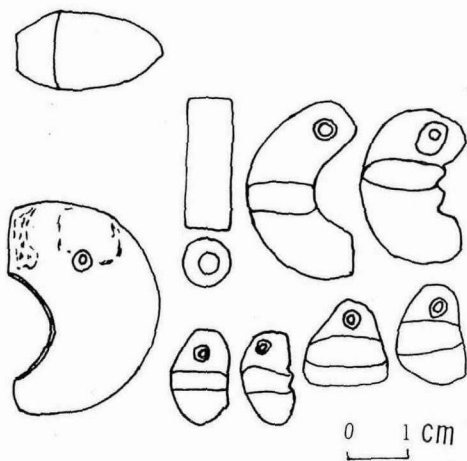


圖 5. 平南 北倉郡 대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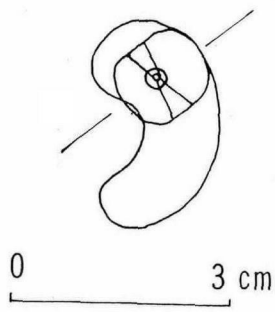


圖 6. 馬山 城山貝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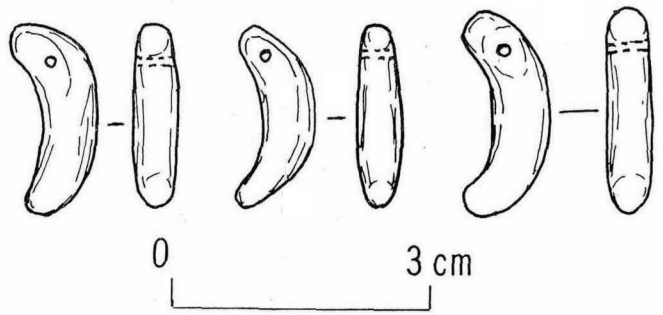


圖 7. 釜山 槐亭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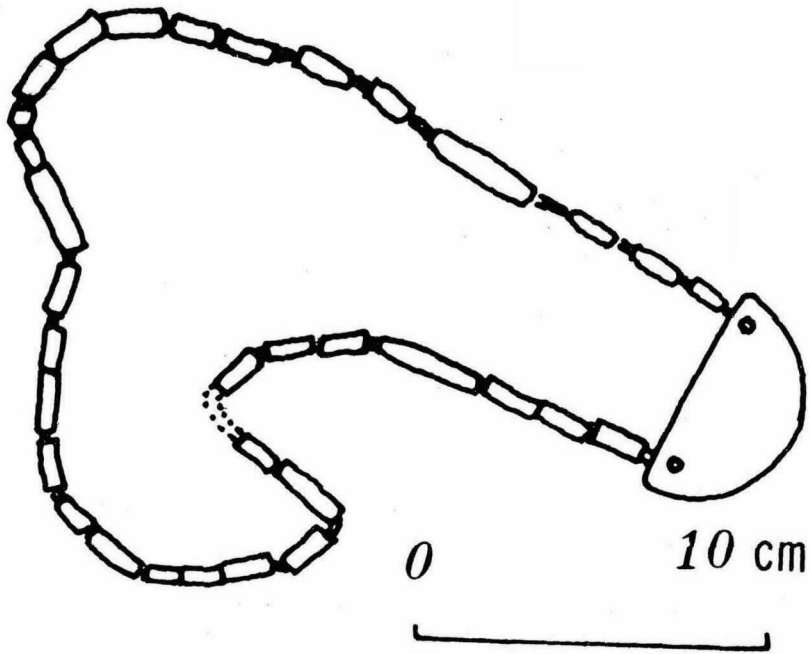


圖 8. 瀋陽 鄭家窪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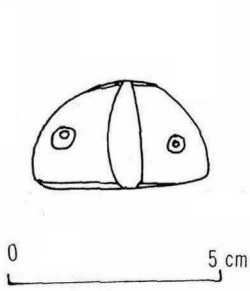


圖 9. 价川郡 龍興里(左) 牙山郡 白岩里(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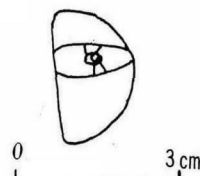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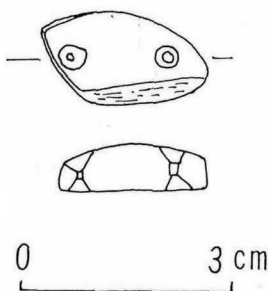


圖 10. 京畿道 鸞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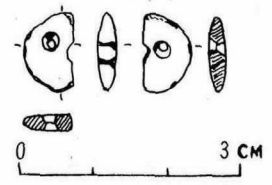


圖 11. 板付周邊遺蹟